

동신대, 파란사다리·한일연수 선정...글로벌 인재 박차

30일까지 참가자 접수·면접 거쳐 선발
뉴질랜드·일본서 각각 실무 역량 강화
연수 효과 극대화 위해 사전·사후 교육
이주희 총장 “더 큰 미래로 도약하길”

동신대가 2026년 한국장학재단 ‘파란사다리’ 사업과 ‘한일대학생연수’ 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2021년을 시작으로 2022년, 2023년, 2025년에 이어 올해까지 파란사다리 사업에 선정되며 재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는 두 사업에 동시에 선정되면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와 글로벌 역량 강화에 더욱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동신대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오는 5월6-7일 이틀간



지난해 파란사다리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신대학교 제공)

면접을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국제 감각과 진로 탐색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동신대는 재학생 25명, 타 대학 학생 5명 등 30명을 선발해 7월11일부터 8월8일까지 4주간 뉴질랜드에서 해외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부설어학원(ELA)

에서의 영어 연수를 비롯해 홈스테이, 문화·역사 탐방, 진로 특강 및 기업 탐방 등으로 구성된다.

연수는 AI 대전환시대에 대응해 한국과 뉴질랜드의 AI 정책과 산업을 비교하고, 미래 사회

에 필요한 리더십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 강화됐다.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와 숙소비는 전액 지원된다.

이와 함께 동신대는 한일대학생연수 사업을 통해 일본경제대학교 후쿠오카캠퍼스에 학생 2명을 파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8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약 16주간 일본어 교육과 현지 기업 현장학습에 참여하며 실무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동시에 키우게 된다. 이 프로그램도 연수비와 숙소비 등 전반적인 비용이 지원된다.

동신대는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사후 교육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사전교육에서는 기초소양교육과 어학교육, 진로탐색, AI 특강, 팀 프로젝트 등을, 사후에는 어학교육과 AI 연계 프로그램, 공모전,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학습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주희 총장은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며 더 큰 미래로 도약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과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市교육청, AI·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한다

선도학교 40곳·중점학교 27개교로 확대
연계 운영 교육과정·수업 혁신 동시 추진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와 ‘AI 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AI·디지털 선도학교는 학교현장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목적으로 2023년 9개교로 출발했으며, 2024년 24개교, 2025년 30개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40개교를 지정해 ▲AI·디지털 교육 자료 운영 ▲광주아이온(AI-ON) 활용 수업 ▲전문 학습공동체 운영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한다.

특히 ‘대표 교사’를 선정해 선도학교의 디지털

교육 전환을 주도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들이 수업에 몰입·전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 등 전문인력과 AI 코스웨어 등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의 수업 활용을 강화한다.

또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선도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창출·확산한다.

AI·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AI 중점학교도 지난해 18개교에서 올해 27개교로 늘어난다.

AI 중점학교는 AI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교원 전문성 강화, 학생 동아리 및 체험활동 확대, 지역사회 연계 거점학교 기능 수행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우수 교육 사례를 주변 학교와 공유·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AI·디지털 선도학교가 AI·디지털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수업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AI 중점학교는 AI·정보교육과 융합한 교육과정 설계와 교수학습 사례 확산, AI 윤리교육에 중점을 뒀다.

시교육청은 AI 선도학교와 중점학교를 연계 운영해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에는 선도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디지털 공개 수업’을 진행하고, 축적된 수업 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정리한 ‘AI·디지털 교육 사례집’을 제작해 학교에 보급한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디지털 대전환기에 발맞춰 학생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장 우수 사례가 학교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전남교사들, ‘마을 자원-교육과정’ 접목 모색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교 연찬회’를 열고, 현장 교사의 실천 역량 강화에 나섰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찬회는 전남형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자원을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교 담당 교사와 교육지원청 장학사, 주무관 등 중서부권과 동부권에서 180명이 참석했다.

/박선욱 기자



송원대, AI·모빌리티 딥테크 생태계 구축

15개 기관 협력 ‘광주형 혁신인재 양성’

송원대가 AI·미래모빌리티 딥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광주형 청년혁신인재 양성’에 나선다.

27일 송원대학교에 따르면 RISE사업단은 최근 제주 엠버퓨어힐호텔에서 ‘광주형 로컬 커스터마이징 청년혁신인재 양성’ 사업공유회를 개최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사진) 사업공유회는 ‘AI·자율주행 인재양성 거버넌스 구축 워크숍’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대학·기업·연구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해 ‘산학연 협력 기반 AI·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AI, 자율주행, 에너지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개발과 실증, 인재 양성, 기술사업화를 연계하는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 기관들은 ▲AI 및 미래모빌리티 기술 공동 연구개발 ▲자율주행 기술 실증 및 산업 적용 ▲기업 수요 기반 교육과정 운영 ▲인턴십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딥테크 기반 창업 지원 ▲데이터 및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명지 송원대 RISE사업단 부단장은 “이번 사업공유회와 협약은 지역과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컨소시엄과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